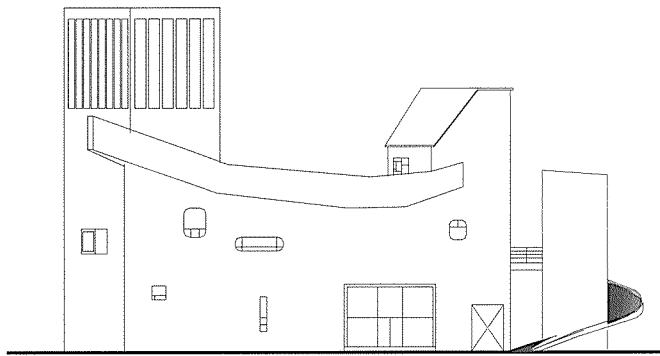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순례교회의 성격도 갖는다. 교회 규모는 연면적 300평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예산 확보의 측면도 고려된 것이지만 기념성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도로에서 비스듬히 언덕을 올라 교회 앞마당에 이르면 정면에 기념관 홀로 들어가는 박스 형태의 문이 있고, 그 우측에는 예배당으로 오르는 경사로가 있다. 1층 기념관은 아펜젤러 목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다. 홀 근처에는 교회사무실을 두어 교회기능과 관리에 편리하게 쓰이도록 했다. 2층 예배실은 1층 기념관을 둘러 홀에서 계단을 통해 오를 수도 있고, 옥외 경사로를 통해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도 있었다. 예배당의 평면은 외부로 만곡된 형태로서 벽면에 둘러싸여 옥외에서와 같이 제단을 향해 시선이 자유롭게 모여들도록 했다. 종교의 구원은 영적인 감화로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한 영성이 충만할 수 있는 예배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간의 적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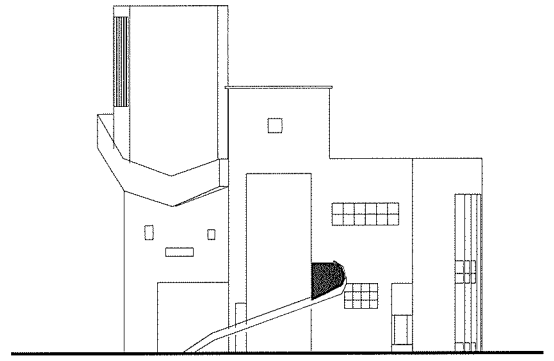
부피와 빛의 작용을 생각했다. 제단에는 측면 스테인드 그라스를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오게 하고, 예배당에는 천창과 측면의 작은 창에서 각각의 특색을 띤 빛들이 모여들게 했다. 예배당 입구 홀은 친교에 알맞게 쓰이도록 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형태로 되어 있다. 곡선으로 된 건물벽선의 완만한 흐름과 빛의 통로와 경사로의 원통 등 수직적 요소의 매스가 형태와 높이를 달리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교회 주변은 마당을 꾸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사색과 대화와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흰색으로 통일된 건물 형태의 힘이 외부공간에 끼쳐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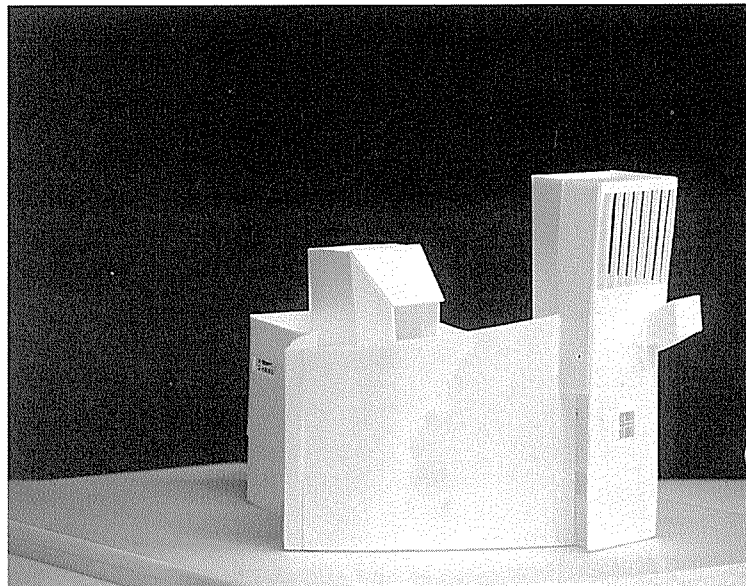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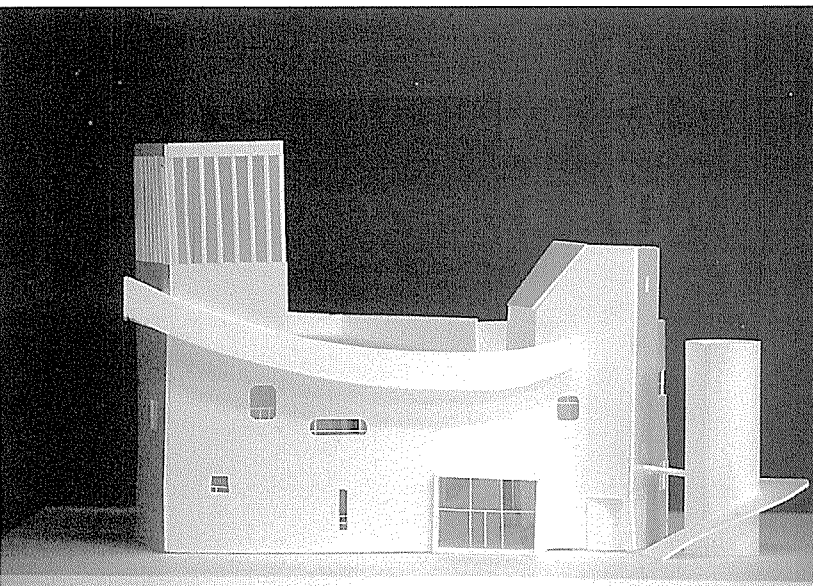
이 계획안은 98년 설계를 의뢰 받고 만들어 설명회를 가졌으나 그 뒤 추진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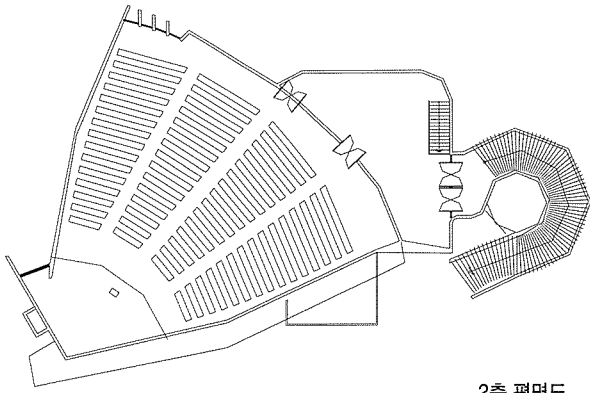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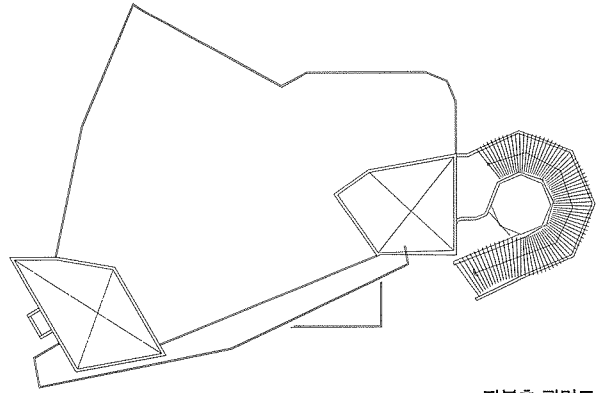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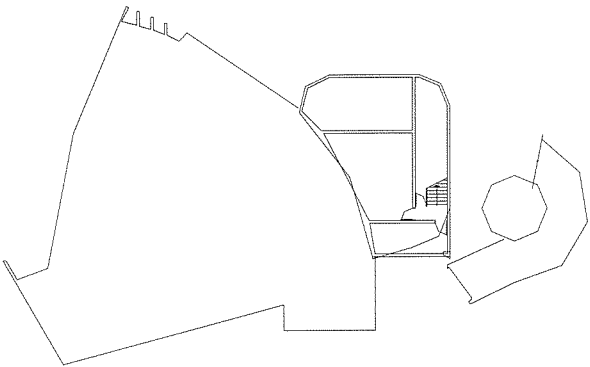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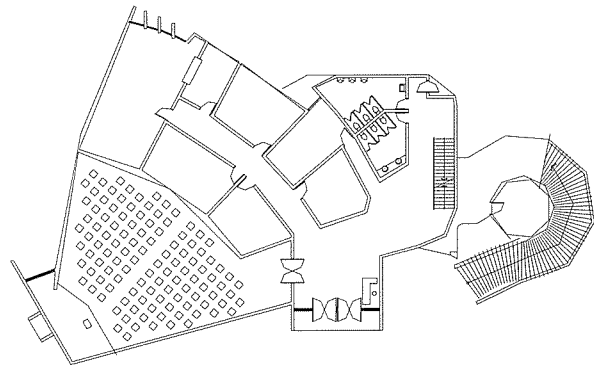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